

# 역사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 〈3.1 운동, 그 가족에게 생긴 일〉

고수신나 / 내일을여는책

평범하게 살던 시골 소녀 우경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전국으로 퍼지는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우경이의 가족들도 만세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평생 걷지 못하게 되고, 할머니와 작은 오빠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어요. 우경이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더 열렬하게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낸 그시대 우경이네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 이규희 / 청어람주니어

## 〈사비성을 지키는 아이들〉

백제의 여덟 명의 아이들은 의자왕이 선물한 칼로 열심히 무술 연습을 했습니다. 계백의 아들 바람결은 동무 중 한 명인 거루의 집에 새로 들어온 종이 신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집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노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의자왕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퍼지고, 점점 백제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퍼져갑니다. 바람결과 아이들은 백제를 지키기 위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이들은 백제를 지킬 수 있을까요?



## 〈으랏차차 조선 실록 수호대〉

장은영 / 파란자전거

하루아침에 역적의 아들이 된 석개는 안의 대감의 배려로 대감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왜군이 쳐들어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모두 불타 전주 경기전밖에 남지 않게 되자 안의 대감은 석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석개는 왜 이렇게까지 실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안의 대감에게 실록의 가치에 대해 듣자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하지만 실록을 옮기는 일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전쟁 속에서 과연 실록은 무사히 옮겨갈 수 있을까요?

## 장은영 / 손주현

## 〈황현의 매천야록〉

매천야록은 1864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말기와 대한 제국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말해요. 고종이 즉위한 당시에는 권세 있는 집안만 배불리 살았던 세도 정치가 이어져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기였어요. 서양의 새로운 것들이 조선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 사이에서 갈 길을 잃던 조선은 힘든 상황이었어요. 급박하고 험난한 시대를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매천야록을 통해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해 한 발자국 다가가보아요.

